

가요 리메이크 곡 연구 - ‘칵테일 사랑’ 중심으로 -

김수빈,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112044@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Pop Music remake song research

Su-Bin Kim,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리메이크란 어떤 창작물을 그것과 같은 장르, 혹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바꿔 만드는 것을 말한다. 창작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음악적 특징과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재해석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곡과 리메이크 곡 사이의 다양한 편곡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칵테일사랑을 중심으로 원곡과 로키드버전의 분석을 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시대별 상황, 배경에 따라 다양하고 트렌디한 새로운 형태로 리메이크가 됨으로써 듣는 이에게 시대별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 공감에 이르도록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론

리메이크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며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2].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3].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악기소리와 MIDI 기술이 늘어 가면서 다양한 편곡이 가능하고 새로운 코러스 도전으로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로키드 ‘칵테일 사랑’의 리메이크 분석을 통해 원곡(마로니에 ‘칵테일 사랑’)과의 악기구성, 코러스, 보컬, 장르의 차이점과 원곡과의 공통점, 음악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2.1.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은 마로니에가 1994년 3월에 발표한 3집 앨범 <<마로니에(칵테일사랑)>>의 타이틀곡으로, 1990년대를 대표하는 메가 히트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은 약 100만 장을 판매하며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흥겨

운 레게리듬에 감미로운 멜로디와 세련된 가사가 조화를 이루며, 신윤미와 최선원의 아름다운 화음, 마지막 후렴구에서 시원하게 내뿜는 신윤미의 고음이 인상적인 곡이다.

원곡자 ‘마로니에’는 1989년에 기획자 김선민, 권인하, 신윤미가 모여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면서 데뷔했다. 마로니에는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고정 멤버 없이 노래에 따라 객원 가수를 도입하는 프로젝트 그룹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마로니에 공원에는 거리 공연을 하기 위해 많은 팀이 나왔는데, 기획자 김선민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로니에’라는 팀명을 지었다.

마로니에는 <칵테일 사랑>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가요계에 보기 드문 흑역사를 남겼다. ‘밀리 바닐리의 립싱크 사기극’처럼 뮤직비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 사람과 실제로 음반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달랐다[1]. 마로니에 3집 음반 녹음에 참여한 가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발매된 3집 타이틀곡 <칵테일 사랑> 노래가 크게 히트하자, 음반회사는 음반 녹음과 아무 관계 없는 멤버들로 그룹을 급조하여 사전 공지도 없이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가 녹음한 음원에 립싱크로 TV에 출연, 대중들로 하여금 이 곡이 마치 그룹 ‘마로니에’가 부른 것처럼 혼동케 했다. 립싱크 파문 이후 음반회사는 <칵테일 사랑> 재녹음 버전에서도 신윤미가 편곡하고 직접 부른 코러스를 도용했다. 신윤미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본인 및 이 곡을 함께 부른 최선원의 이름이 음반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음반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재판 결과 신윤미는 ‘가수의 성명표시권’과 ‘코러스 편곡 저작권’을 인정받으며 권리를 회복했다. 당시 재판은 가수가 제작사를 이긴 첫 판례로 기록됐고,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됐다. 그림 원곡자 마로니에의 각테일사랑을 연구해 본다.

2.2 곡 분석 - 원곡버전



[그림 1] 마로니에 ‘각테일 사랑’ 18 ~ 3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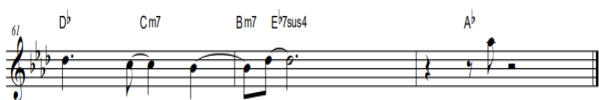
위 [그림 1]를 살펴보면 남자보컬이 메인인 파트이며 전체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유니즌으로 진행되는 데 25마디, 33마디 소절에는 4도 화음으로 진행이 되어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멜로디 아래 여자코러스가 ‘두’라는 발음으로 코러스를 넣어주는데 E.Piano의 음이 높은 컴핑이 더해져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림 2] 마로니에 ‘각테일 사랑’ 45 ~ 60마디

전조가 되기 전 ‘우’라는 발음으로 멜로디를 올려줌에 따라 전조되는 타이밍을 알려주고 전조가 됨으로써 노래의 감정이 고조됨을 느낄 수 있다. ‘우’라는 패드가 계속 나오는데 두 박자 동안 해당 코드의 근음으로 진행되고 남은 두 박자에 ‘뽀뽀’이라는 코러스가 나온다. 코러스가 추가되어 피아노 컴핑과 더불어 리듬에 대한 표현이 훨씬 살아난다.

가사를 살펴보면 우울한 나의 마음을 ‘비’로 나타내어 시적인 표현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 메인 테마 가사가 반복이 됨과 함께 애드립이 새롭게 추가되어 노래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준다.



[그림 3] 마로니에 ‘각테일 사랑’ 61 ~ 63마디

[그림 3]인 Outro를 살펴보면 Ab key 4도인 Db으로 시작을 하고 하향진행으로 노래가 차분히 마무리가 되는 느낌을 주며 62마디 3번째 박자부터 드럼 Fill in으로 노래가 끝나는 부분을 암시해준다. 노래가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은 벨을 사용해 포인트 있는 마무리를 하여 깔끔한 느낌을 준다.

2.3. 로키드&유연 - 리메이크버전

로키드는 인디씬에서 사운드클라우드와 여러 컴필레이션 프로젝트들을 통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신예 뮤지션이다. ‘리본 프로젝트’는 ‘새로 풀고 엮어 다시 만나다’란 슬로건과 같이 숨겨진 명곡과 새로운 가창자의 만남 등 다양한 방식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다. 새로운 편곡을 통해 확장된 이야기와 또 다른 감성을 전달하며 2021년 음원 소비층에게 공감할 수 있는 유도하는 프로젝트이다. ‘각테일 사랑’이란 노래도 마찬가지로 ‘리본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있는 노래이며 로키드만의 음악색으로 재해석했다.

2.3.1 INTRO



[그림 4] 마로니에 ‘각테일 사랑’ 1~8마디



[그림 5] 로키드&유연 ‘각테일 사랑’ 1 ~ 4마디

위 [그림 4]은 마로니에 ‘각테일 사랑’의 INTRO 부분이다. 스트링과 오르간으로 패드를 깔아주고 신스로 멜로디를 연주한다. 드럼은 킥을 주로 한 단순한 ‘쿵 칫 따’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7번째 마디부터 드럼으로 박자를 쪼개주며 8번째 마디에는 노래가 시작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Crash와 드럼 Fill in 이 등장한다. 인트로 첫 번째 코드는 G key의 4도인 CM7으로 시작이 되며 하향코드로 진행이 된다.

리메이크버전 INTRO부분을 살펴보면 ‘각테일 사랑’의 후렴 부분을 intro의 메인 테마로 사용한다. E.Piano로 코드 패드를 깔아주고 실로폰으로 메인 멜로디를 연주하여 원곡보다 경쾌

한 느낌을 준다. 4번째 마디에는 드럼 Fill in이 크레센도를 해주어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 강도가 된다. 원곡은 8마디의 전주를 사용하지만 4마디의 전주로 지루하지 않은 진행을 보여준다.

2.3.2 Verse

[그림6] 로키드&유연 '칵테일 사랑' 14 ~ 29 마디

13마디에서 일렉기타의 애드립으로 14마디부터 랩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주고 Verse부분을 살펴보면 남자가 메인파트인 건 동일하지만 가사를 개사하여 싱잉 랩으로 진행한다. 싱잉 랩을 통해 노래가 부드럽게 들리는 효과를 준다. '프리지아', '어느 작은 우체국 앞'이라는 동일한 키워드는 들어갔지만 막연히 연인을 기다리는 원곡의 가사 느낌과는 다르게 씬을 타는 느낌의 가사가 전달된다. verse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코러스가 들어가지 않고 E.Piano와 신스 베이스로 첫 번째 박자를 강조하여 랩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2.3.3. Chorus

[그림7] 로키드&유연 '칵테일 사랑' 61 ~ 63 마디

전조가 되는 원곡과는 다르게 끝마무리까지 같은 Key로 진행이 되며 깔끔한 보컬인 원곡과는 다르게 끈적하게 불러 첫 번째, 세 번째 박자가 훨씬 돋보인다[4].

2.3.4 Outro

[그림7] 로키드&유연 '칵테일 사랑' 67 ~ 69 마디

Outro를 살펴보면 Eb key의 6도인 Cm7으로 시작하여 1도, 4도, 1도, 2도, 1도로 마무리가 된다. 마지막 69마디에는 2도, 1도 하향진행이 되고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악기들도 끝을 내어 깔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3. 결론

리메이크는 단순히 곡 자체를 재해석하지 않는, 새로운 편곡으로 창조적인 음악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칵테일 사랑은 1994년도 곡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곡을 통해 당시의 음악 문화를 알 수 있고,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다. 다양한 편곡 방식의 리메이크로 음악적 변화를 주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와 음악문화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대중음악이 다양하고 트렌디한 새로운 형태로 탄생함을 알 수 있다.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 공감이 되도록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백투더 뮤직차트) 94년 여름, '칵테일 사랑'의 낭만이 흘렀다. 그러나... 2015.06
- [2] "리메이크 영화 <만추>의 비교분석 연구." 이인혜(Lee In Hye). 씨네포럼 0.19 (2014): 75-113.
- [3] <WHY> 리메이크에도 예외가 있다. 2007.08
- [4] 대중음악 리메이크의 편곡적 특징 연구. 최슬지 2017